임실, 열악한 농촌마을 '활기'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갈마지구 정비 본격화

임실군이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까지 열악한 농촌취약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삶의 질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5일 2019년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된 임실읍 갈마 마을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등 주요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갈마 마을회관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심 민 군수를 비롯한 추진위원과 마을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갈마지구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착수와 관련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공모신청한 예비계획서 내용을 점검하고,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향후 일정을 설명하고,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를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 · 위생 등이 취약한 농촌마을의 주거환경개선과 생활인프라 확충,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임실군은 2015년 임실읍 감성마을을 시작으로, 2016년 운암면 쌍암마을, 2017년 관촌면 방현마을, 2019년 4월에 임실읍 갈마마을이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국비 16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1억원이 투입된다.

주요사업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철거와 개량, 빈집정비, 마을안길, 담장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갈마마을은 읍소재지 인근 마을임에도 불구, 30년 이상된 노후주택과 슬레이트 비율이 높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 · 위생이 매우 취약한 마을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재해위험시설 정비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4개 마을이 선정되어, 거주여건이 열악하고 안전과 위생 등이 취약한 농촌마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열악한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인프라 확충과 주민역량강화 등을 적극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청 휴게 공간 친화공간 변모

미세먼지 차단 400개 화초 · 방음 설치 상담 공간 조성

남원시청이 시민들과 직원들의 휴식과 소통을 위해 마련한 1층 휴게 공간을 친절과 소통에 방점을 둔 모습으로 탈바꿈 시키며 주목 받고 있다.

그 동안 남원시는 1층 로비의 활용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해왔으며, 지난 봄에 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증진과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한 1층 휴게공간은 이용자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곳에는 이용자들이 기호에 맞춰 앉을 수 있는 의자와 소통 목적에 따라 이용하기 편한 탁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를 준비했으며, 별도의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음이 가능한 공간도 조성했다.

무엇보다 따뜻한 느낌의 갈색 마루와 멋지게 달린 샹들리에는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충분했으며, 최근 이곳에 400개의 초록화초를 더 하며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감을 통한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더해졌다.

400개의 화초는 요새 연중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천연 공기 청정기 역할까지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아, 깨끗한 공기환경 조성에서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 민선 7기는 핵심 정책기조를 '친절과 소통'에 두고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를 핵심공약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휴게 공간의 대변신은 이러한 의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메아리

남원농협, 셀프주유소와 자재센터 개장

남원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이 지난 2일 요천로 1846(고죽동 77)에 남원농협 셀프주유소와 자재센터를 개장했다.

남원농협 주유소는 최신식 고급 버블 자동세차, 대형 자동세차, 동파방지열선이 장착된 셀프세차장, 셀프주유기 4기를 완비한 인근 지역 내 최고 시설의 셀프주유소로 세차 서비스와 면세유 및 일반유류를 공급한다.

또한 자재센터에서는 벌초용품, 농자재, 공구철물, 생활용품 등을 원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는 쇼핑 공간이다.

남원농협은 올해 초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준공에 이어 주유소, 자재센터를 개장하였고, 로컬푸드 직매장 및 식당, 금융점포, 카페, 영화관 등을 준비 중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농 · 특산물,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입점

토마토고추장 등 8종 제품 선보여… 판매액 확대 기대

순창군이 농 · 특산물 수출을 위한 도약의 날개짓을 하고 있다.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사장 황숙주, 이하 진흥원)이 최근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7층 지역 명품관에서 본격적인 제품판매를 개시했다.

이번 입점에 성공시킨 제품은 진흥원에서 개발한 토마토고추장, 청국장환, 발효커피 등 8종의 제품으로, 추후 점진적으로 판매제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진흥원 측은 밝혔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은 지난 2016년에 문을 연 서울 시내 면세점으로 업계에서는 후발주자지만, 매년 매출액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이번 면세점 입점이 순창 농 · 특산물 판매액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진흥원은 순창에서 생산한 농 · 특산물의 면세점 입점으로 매출액 향상뿐 아니라 대외 이미지제고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최근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7층 지역 명품관에서 본격적인 제품판매를 개시했다.

면세점이 갖고 있는 이미지의 특성상 고급화 또는 국내 대표 인증상품이라는 이미지를 외국인과 국내 방문객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 이번 면세점 입점이 이미지를 고급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기업 바이어에 의존해 진행하던 해외마케팅을 외국소비자에게 직접 순창군의 제품을 홍보 · 판매하는 마케팅도 펼칠 수 있어 순창군의 장류제품 및 농 · 특산물의 수출길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유명 BJ들이 국내 면세점에 판매중인 제품을 직접 실시간으로 중국 전역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개하고 있어, 중국 고객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면세점 입점을 성공시킨데 이어 다각적으로 오프라인 유통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순창 농.특산물 판매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R&D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품판매를 위해 REDONE(리던)이라는 브랜드를 출범시켜 유통분야까지 업무를 확대해 지난해 5억 5천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10억원의 매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순창군의 대표 유통조직으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 2020년 신규 4개 사업 123억원 확보

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공모)사업에서 총사업비 123억원(국비 86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사업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3개소로, 주천면 · 보절면 · 이백면(120억원/면 당 40억원)과 시군역량 사업(3억)이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낙후된 면 소재지의 중심지 기능을 보완하고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기능을 제공, 2020년부터 4년 동안 시행해 문화복지 충족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은 주민 추진위원회 구성과 농촌현장포럼, 리더교육, 주민 및 공무원의 역량강화 등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예비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민이 직접 도와 중앙평가에 참여해 사업계획 발표와 평가를 통해 선정 된다.

남원시는, 2018년 14개 사업 192억원, 2019년 14개 사업 135억원을 확보해 대강면, 사매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산동면, 아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과 수지 서당, 아영 봉대 등 19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1년 공모를 위해 주민 추진위원회 구성과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아름다운 동행 설명회' 성황리

남원시는 8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지역민과 귀농귀촌인 750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례에 걸쳐 진행한 '아름다운 동행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설명회는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간의 이해와 소통을 돕고 공생하는 농촌을 만들어가고자 마련된 것으로, 행사에서는 남원시 농정 및 귀농귀촌 지원정책,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더불어 사는 농촌 등을 주제가 진행되었다.

행사를 주관한 박향기 남원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한자리에 모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민과의 지속적인 상생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또한 배세근 농촌활력과장은 "귀농귀촌인도 농촌정서를 이해하고 마을의 일원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상생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농기센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순창군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 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20가지 성분 및 중금속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품목은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햅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대추 등 총 46건으로, 조사 결과 46건 모두 '적합'으로 판정됐다.

이번 조사는 올해 PLS 제도 시행에 따라 순창군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 분석실에서 진행됐으며, 분석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와 안심하고 농산물을 출하 할 수 있게 되어 농민들은 한시름을 덜게 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N치즈축제 먹거리장터 간담회

임실군은 2019년 임실N치즈축제 먹거리장터 22개 입점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5일 보건의료원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임실N치즈축제의 먹거리장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입점 대표자의 경영마인드 향상과 좋은 음식문화 서비스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접포 운영계획과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임실N치즈축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실=진홍영 기자